

# ‘나답게’산다는 것에 대한 불교적 이해

이필원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파라미타칼리지 교수

## A Buddhist understanding of living ‘as I am’

Lee, Pilwon

Dongguk University Gyeongju

leepwon@dongguk.ac.kr

### Abstra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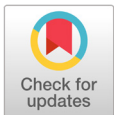
We don't have to emphasize the subject "I" in "Living as I am." Problems arise when we emphasize the subject. The clash between "Understood Self by the idea" and "real Self" is likely to move on to what is commonly called self-dissociation. What prevents this pathological phenomenon is to omit or weaken the proposed 'I' as the principal. In that case, "experienced and concrete me" who lives vividly in reality, not out of ideas, functions. This 'I' is not the 'Who am I' when I'm sad?' but 'I can cry.' I am a healthy person who lives firmly in reality without being separated from reality. Only then will we have serious thoughts and reflections on 'how to form a relationship?' and 'what to do?'

When it comes to "live like me," we should develop a program that allows us to find ourselves "me" in the "relationship" instead of putting "nada" at the heart of the problem. For example, rather than stipulating whether one is a child or a brother, 'I' in the family is helping to establish a proper relationship by making them think about what kind of relationship they should have with their parents, brothers and sisters to be beneficial and happy to 'I' and 'family'. I think that once the relationship is healthy, what role 'I' will play in the relationship will naturally be derived.

**Keywords:** Live like me, Relationship, Understood Self by the idea, An empirical Self

### I. 들어가기

최근에 가장 인상깊게 읽은 책이 있다. 유발하라리라는 사람이 지은 『사피엔스』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이른바 농업혁명 이후, 인류는 땅에 대한 소유의식이 강력하게 대두되었다고 한다. 농사를 짓기 위해 비옥한 땅을 소유해야 했고, 미래를 생각하며 끊임없이 노동에 헌신해야 했다는 것이다. 나아가 다른 사람들의 땅을 빼앗는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영토를 지키기 위한 투쟁의 과정이 지금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되었다고 한다. 반면 수렵채집인들은 훨씬 적은 소유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있었고, 하루 뒤, 한달 뒤, 일년 뒤의 미래가 아닌 지금 당장 먹거리에 충실했다고 한다. 땅에 대한 소유의식이 없었기에, 그들은 훨씬 자유로웠으며, 노동에 자신을 희생시킬 필요도 없었다고 한다. 지구 전체 육지의 약 2%를 갖고 인류는 먹거리를 조달하고 있기에, 그 투쟁의 강도와 노동의 강도는 엄청난 것이라고 한다.



#### OPEN ACCESS

KJRE. 2020 December, 64(1): 201-214

DOI: <https://doi.org/10.12972/kjre.20200026>

Received: November 29, 2020

Revised: December 12, 2020

Accepted: December 28, 2020

Copyright: © 2020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필자는 『사피엔스』라는 책에서 강조하는 몇 가지 키워드가 있겠는데,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소유’라고 생각한다. 소유는 자의식과 가장 밀접한 개념이기도 하다. 불교에서 말하는 ‘아(我)’와 ‘아소(我所)’는 자의식과 소유의 관계이다. 이를 간단하게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나’는 매우 추상적이며, 관념적인 개념이다. 이는 구체적이지 않으며 매우 막연한 신념, 즉 믿음의 내용이다. 이에 반해, ‘내 것’은 구체적이며 사실적인 어떤 것을 말한다. ‘내 것’에는 육체도 포함되며, 다른 사람의 평판이나 명예, 권력 등을 포함한다. 구체적인 소유물이긴 하지만, 물질과 관념의 복합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나’는 순수 관념의 산물이다. ‘나’는 자기 동일성을 기반으로 하며, 그 자기 동일성은 경험의 연속성을 제공하는 ‘기억’에 의존한다.

결국 ‘나’라고 하는 것은 기억의 담지자라는 측면에서 이해되고, 해석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그 담지자로서의 형이상학적이며 관념적인 존재가 상정되게 된다. 이를 인도철학에서는 아뜨만(Ātman)이라고 하고, 흔히 영혼이니 참나니 하는 것이 이것이다. 이에 반해 불교에서는 이를 부정하면서 무아(無我)를 제시한다. 그러나 불교의 무아는 연기적 존재임을 밝히는 것이지, ‘있다, 없다’의 ‘유무’의 문제로 파악되는 것은 아니다. 본 논문은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나 다움’에 대한 불교적 이해를 살펴보고자 한다.

## II. ‘자아관념’에 대한 불교적 관점

### 1. 소유관념과 자아관념

자아관념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그것을 한가지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소유관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한 것으로 『숫따니빠따』라는 초기경전에 「다니야 경 *Daniya sutta*」이라고 하는 짧은 경전이 있다. 다니야는 마히강변에 살며 목축업에 종사하던 사람이었다. 그는 부처님과 만나 대화를 나눈다. 대화의 내용은 소유의 삶과 무소유의 삶이다. 그 일단의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다니야]

다 자란 송아지도 있고, 젖먹이 송아지도 있고, 새끼 뺨 어미 소뿐만 아니라 성년이 된 암소도 있고, 암소의 짝인 황소 또한 있으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Sn.27)

[붓다]

다 자란 송아지도 없고, 젖먹이 송아지도 없고, 새끼 뺨 어미 소뿐만 아니라, 성년이 된 암소도 없고, 암소의 짝인 황소 또한 없으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Sn.28)

[빠빠만]

자식이 있는 이는 자식으로 인해 기뻐하고, 소를 가진 이는 소로 인해 기뻐합니다. 집착의 대상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기쁨이 있으니, 집착이 없는 사람에게는 기쁨도 없습니다.(Sn.33)

[붓다]

자식이 있는 이는 자식으로 인해 슬퍼하고, 소를 가진 이는 소 때문에 슬퍼합니다. 집착의 대상으로 인해 사람에게 슬픔이 있으니, 집착이 없는 사람에게는 슬픔이 없습니다.(Sn.34)

위의 경문은 소유가 나의 행복의 내용임을 말하는데 반해, 붓다는 소유는 행복이 아닌 슬픔의 원인임을 밝히고 있다. 다니야는 아내와 자식과 함께 잘 지어진 집을 갖고 홍수에도 안전한 강둑 위에서 살고 있다. 그는 많은 송아지와 소를 갖고 있어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 그러니 하늘에서 비를 뿌리더라도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그래서 그는 말한다.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 하지만 붓다는 그와는 반대이다. 붓다에게는 가족도 없으며, 집도 없다. 송아지는 물론 어떤 소유물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니 붓다에게는 잃어버릴 것이 없다. 그래서 말한다.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 우리는 소유를 기뻐한다. 하지만 소유한 것을 잃어버릴 때 슬픔과 좌절을 경험한다. 소유는 항구적이지 못하기에, 결국은 상실로 이어지게 된다. 그래서 소유를 통해 얻는 행복과 기쁨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고, 슬픔으로 귀결된다.

이 경전의 마지막에 악마 빠빠만이 등장하면서, 바로 소유를 통해 얻게 되는 행복과 기쁨을 말한다. 하지만 붓다는 그 소유가 슬픔의 원인임을 설파한다. 그래서 소유에 대한 집착이 없는 사람에게는 슬픔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결국 여기에서도 ‘나’라고 하는 존재는 송아지를 지닌 나이며, 자식을 갖고 있는 ‘나’이며, ‘아내’가 있는 ‘나’이다. 그 외에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그래서 ‘나’는 ‘나의 소유물’로 지시될 수밖에 없다. 기뻐하고, 슬퍼하는 ‘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대상 즉 소유 때문에 기쁨과 슬픔이라는 ‘현상’이 일어난다.

## 2. 뇌과학에서의 자아 이해

최근 뇌과학의 비약적인 발전은 인간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키워드를 던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뇌의 작용’이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결국 뇌 작용의 결과이며, 마음작용은 또한 뇌 작용이라는 것이다. 이를 논증하는 대표적인 예가, 1848년 미국의 버몬트주에서 철도공사에 동원된 25살의 피어니스 게이지<sup>1)</sup>의 예이다. 그는 바위를 부수기 위해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하고 있었는데, 사고로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했다. 그 결과 1m짜리 쇠막대가 그의 얼굴에 박히는<sup>2)</sup>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그는 이제 더이상 이전이 그가 아니었다. 매우 쾌활하고 협동심이 강한 청년이었던 그는, 사고 후 특하면 욕설을 입에 담고 매사 적대적이면서 이기심이 강한 사람으로 돌변했다고 한다. 사후 이 사람의 뇌를 연구한 할로 박사는 그의 좌뇌와 우뇌의 전두엽 부분이 거의 사라졌다는 것을 밝혀냈다.<sup>3)</sup> 이를 통해 인간에 대한 관점은 크게 변화하게 되었다. 즉 뇌의 특정한 부분이 손상을 입으면 성격이나 인지적 측면, 언어활동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아주 성실하고, 이타적인 사람이 어느 순간 불성실하며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의 특정한 뇌의 영역이 손상을 입어서 일어난 일을 그 사람의 개인적인 성향의 돌변으로 보고,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있을까.

또 하나의 실례가 있다. 1953년 헨리 몰레이슨(환자 HM으로도 불린다)은 간질 치료를 위해 해마와 편도체를 제거하게 된다. 간질은 일정정도 개선이 되었지만, 그는 더 이상 장기기억을 생산해 내지 못했다. 그의 기억은 27세에 머물러 있었고, 그 이후 새롭게 형성된 기억은 저장되지 못하기에 그의 기억이 되지 못했다. 그에게 자신은 늘 27세 이전의 모습이었으며, 그해야만 했다. 그러나 50, 60대가 된 자신의 모습은 자신이 아니었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 결국 자신의 경험이 기억을 통해 연속적 흐름을 갖지 못하면 우리에게 ‘나’라는 관념은 만들어지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 사건이다. 이러한 실례들을 통해 인간을 이해하는데 뇌의 역할은 크게 부각되게 되었고, 이후 뇌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인간을 뇌 작용의 결과로 이해하는 흐름이 크게 강화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뇌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감정(emotion)은 “느낌이 아니라 육체에 기반을 둔 생존 본능으로, 즉각적인 위험을 피하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sup>4</sup>으로 정의된다. 또 하버드대학교의 심리학자 스티븐 핀커는 “의식이란 뇌 안에서 휘몰아치는 폭풍과 비슷하다.”고 하면서, “사람들은 ‘나’라는 존재가 두뇌의 통제실에 앉아 모든 장면을 스캔하면서 근육의 움직임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모든 느낌은 환상에 불과하다. ... 두뇌는 합리적인 해석을 내림과 동시에 ‘하나의 자아가 모든 결정을 내린다’는 느낌을 만들어 낸다.”<sup>5</sup>고 말한다.

결국 뇌학적 관점에서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나’는 영혼과 같은 존재 혹은 자기 동일성을 갖는 형이상학적인 존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나’가 존재한다고 믿는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의 신화에 불과한 것으로, 그렇게 믿고 싶어하는 것일 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오스틴이란 신경과 의사는 이렇게 말한다. “자아성의 개념은 뇌가 신체 이미지-신체자아-를 그 잠재적인 주요 축으로 표상함으로써 시작된다. 이 신체 이미지를 우리들은 소마(soma(몸))로 표상한다. 아이들은 이런 신체의 핵심적인 틀을 따라서 암묵적으로 내재된 정신적 자아(그들의 정신psyche) 표상이 발달해가기 시작한다. 이런 과잉조건화된 정신 속에서만 우리는 세상을 들여다보게 된다. 그리고 이에 따라 좋고 나쁨을 판단해서 행동하게 된다.”<sup>6</sup>

결국 뇌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자아란 신체이미지를 표상하고, 그 신체에 내재해 있는 정신적인 내용을 ‘나’ 혹은 ‘자아’, 혹은 ‘영혼’으로 표상한다고 일단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 3. 오온을 통해 본 자아관념의 이해

그럼 불교, 좀 더 범위를 한정해서 초기불교에서는 어떻게 자아를 이해하는지 살펴보자. 일단 『초전법륜경』의 설법 내용 가운데 ‘오온무아’의 가르침을 살펴보는 것이 순서일 것 같다. ‘오온무아’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구들이여, 육체는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육체가 나라면 이 육체에 질병이 들 수가 없고 이 육체에 대하여 ‘나의 육체는 이렇게 되라. 나의 육체는 이렇게 되지 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비구들이여, 육체는 내가 아니므로 이 육체가 질병에 들 수 있고, 이 육체에 대하여 ‘나의 육체는 이렇게 되라. 나의 육체는 이렇게 되지 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느낌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느낌이 나라면 이 느낌에 질병이 들 수 없고 이 느낌에 대하여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라.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지 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비구들이여, 느낌은 내가 아니므로 이 느낌이 질병에 들 수 있고 이 느낌에 대하여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라.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지 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 [상과 식의 내용]중략 ….

비구들이여, 의식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의식이 나라면 이 의식에 질병이 들 수 없고 이 의식에 대하여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라.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비구들이여, 의식은 내가 아니므로 이 의식이 질병에 들 수 있고 이 의식에 대하여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라.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sup>7</sup>

이어지는 내용을 간단하게 질문과 답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질문] ‘육체[rūpa], 느낌[vedana], 지각[saññā], 의지[sāṅkhara], 의식[viññāṇa]은 영원한가 무상한가?’

[답변] ‘무상합니다.’

[질문]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답변] ‘괴로운 것입니다.’

[질문] 무상하고 괴롭고 변화하는 것을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이고, 이것은 나의 자아이다’라고 여기는 것은 옳은 것인가?

[답변] 옳지 않습니다.

인간을 이해하는 주요한 패러다임은 유물론(materialism)과 유심론(spiritualism)이라고 할 수 있다. 오온(五蘊)은 인간을 ‘색, 수, 상, 행, 식’의 다섯 가지 요소로 분석한 것을 말한다. 이 가운데 색(rūpa)은 물질, 혹은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나머지 네 가지는 정신작용을 의미한다. 유물론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본질은 물질, 즉 rūpa가 될 것이다. 반면 유심론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 본질은 의식, 즉 viññāṇa가 될 것이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유물론, 유심론의 두 패러다임을 모두 초월하는 제 3의 입장을 제시한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불교는 본질(essence)을 논하지 않는다. 본질이란 어떤 것을 ‘그것을 그것 이게끔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본질은 실체(usia)라는 말로도 사용된다. 우리가 세상이나 어떤 대상을 볼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것의 본질을 포착하려는 본능적인 내적 성향을 갖는다.<sup>8</sup> 즉 우리가 대상을 볼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것을 해명하고자 노력한다. 그 해명의 과정이 본질파악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불교의 오온론에서는 이러한 본질에 대한 어떠한 추구도 발견할 수 없다. 이러한 특성을 붓다의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어떠한 육체/물질이 과거에 속하든 미래에 속하든 현재에 속하든, 내적이든 외적이든, 거칠든 미세하든, 저열하든 탁월하든, 멀리 있는 가까이 있든, 그 모든 육체/물질은 이와 같이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올바른 지혜로써 관찰해야 한다.

...[수, 상, 행의 내용 중략]

어떠한 의식이 과거에 속하든 미래에 속하든 현재에 속하든, 내적이든 외적이든, 거칠든 미세하든, 저열하든 탁월하든, 멀리 있는 가까이 있든, 그 모든 의식은 이와 같이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올바른 지혜로써 관찰해야 한다.<sup>9</sup>

이렇듯 불교는 본질 해명이 아니라, 본질이 없음을 해명하고자 노력한다. 그리고 대상을 있는 그대로(yathābhūtam) 관찰해야 함(datthabham)을 주장한다. 여기서 관찰해야 한다는 말의 원인인 datthabham은 ‘보다’라고 하는 동사 dassati 의 의무분사형태이다. 즉 ‘보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 말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직시(直視)’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이는 이전의 관념이나 개념, 선입견 등을 일체 허용하지 않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나’와 ‘나의 것’에 대해 교육받고 훈련받는다. 그 결과 우리에게 ‘자아관념’이 확고하게 자리하게 된다. 하지만 확고하게 생각된 ‘자아’라는 것이 하나의 환상일 수 있다는 사실이 늘 자리하게 되고, 이러한 흐릿한 생각의 편린들이 우리를 근원적으로 불안하게 만든다.

<아메리칸 사이언티픽>의 수석 칼럼니스트를 역임하고, 미국에서 가장 명망있는 과학 저술가로 손꼽히는 ‘존 호건(John Horgan)’은 우리가 하는 많은 생각 가운데 위험한 생각으로 ‘영혼이 없다고 보는 것’을 꼽았다.<sup>10</sup> 이 말은 달리 우리에게 ‘자아’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으로 그 표현을 바꿀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이 왜 위험한 생각일까? 존 호건은 최근의 신경과학자들이 주장하는 바, 즉 인간의 지각 능력과 기억, 판단, 감정, 의식 등은 모두 뇌 속의 전기화학적 신호가 변환된 신경코드(neural code)의 작용에 불과하다는 관점에 근거한 발언이다.<sup>11</sup> 신경과학자들의 관점은 사실 유물론에 매우 가깝다. 즉 정신작용은 모두 뇌작용의 결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뇌는 불교의 오온론에 따르면, 색(rūpa) 즉 물질/육체에 속한다. 앞서 말했듯이, 불교는 육체와 정신 그 어느 쪽의 편에도 서지 않는다. 그것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의 관념의 반영이며, 해석된 영역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교는 ‘연기적 관점’으로 인간을 이해한다. 육체와 정신은 그 어느 하나가 본질이 아니라, 이 둘은 서로 연기적 관계속에서 ‘나’라는 현상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결국 연기적 이해에서 볼 때, 자아라는 환상은 존재할 수 없다.

이상의 인간의 본질, 즉 자아와 관련된 논의를 도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4. 자아관념의 구성방식

데이비드 로이(David R. Loy)라는 미국의 불교학자는 우리가 갖는 자아 의식은 가장 위험한 망상이라고 진단한다. 그리고 그는 이 자아라는 느낌은 심리적, 사회적, 언어적 구성물로 설명한다.<sup>12</sup> 이러한 설명은 데이비드 로이의 독창적인 해석이 아니라 현대 심리학이 제시한 해석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                                                                      |
|-----|----------------------------------------------------------------------|
| 심리적 | 에고-자아가 정신적 조건들의 산물이라는 의미                                             |
| 사회적 | 자아 감각이 다른 구성된 자아들과의 관계에서 발현한다는 의미                                    |
| 언어적 | 자아 감각을 갖는다는 것이 나, 나를, 내 것, 내 자신과 같은 특정한 이름과 대명사 사용법을 배우는 것과 관련된다는 의미 |

로이는 현대 정신치료는 주로 우리가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데 관심이 있다고 본다. 그래서 에고-자아는 교정되어서 사회에 잘 적응해야 하고, 우리는 사회에서 주어진 역할을 더 잘 수행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불교는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고 단언한다. 사회적으로 잘 적응한 에고-자아라도 여전히 병든 에고-자아라고 그는 해석한다. 바로 이 점에서 불교와 현대 심리학이 갈라진다고 본다. 불교는 자아 감각이 재구성될 수 있다는 점과 그것이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불교는 자아라는 느낌이 해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그것의 참된 텅 빈(empty) 성격, 곧 무주(無住, non-dwelling)의 성격을 깨달아야 함을 더 강조한다<sup>13</sup>고 말한다.

이러한 로이의 입장은 대단히 주목할 만하다. 불교는 사회에 잘 적응하는 사람을 만드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 애초 사회라는 것 자체도 구성물에 불과하다. 요즘은 불과 몇 년만 지나도 사회 구성원들의 생각이나 생활의 패턴이 눈에 띄게 변한다. 과연 사회에 적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또한 불교는 어떠한 자아의식도 습관적으로 지각하고,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을 뿐이라고 본다.<sup>14</sup> 결국 자아의식은 색수상행식이라는 오온이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어 일정한 패턴을 형성하는가에 따라 형성되는 관념의 산물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인을 이루는 불변의 자아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자아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에 사회에 잘 적응하는 개인에 대한 문제는 아예 문제시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참고할 만한 경전이 있다. *Suttanipāta*에 나오는 *Vāsetṭhasutta*의 내용이다. 이 경은 바라문계급인 바라드와자(Bhāradvāja)와 와세따(Vāsetṭha)가 바라문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 논쟁을 벌이다가 붓다를 찾아가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들 바라문은 붓다에게 “출생에 따라 바라문이 됩니까? 아니면 행위에 따라 바라문이 됩니까?”라고 질문한다. 붓다는 이들의 질문에 먼저 종에 따른 구별을 설명한다. 즉 생명에는 모두 출생에 따른 차이를 갖는다는 것이다. 벌레나 나비, 개미, 네발 달린 짐승, 배로 기어다니는 것들, 물속에서 태어나는 것들, 하늘을 나는 것들과 같이 이 세상에는 출생에 기인한 다양한 특징들이 존재함을 설명한다. 그러나 인간들 사이에는 출생에 기인한 이러한 특징의 다양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간에게는 종에 따른 특징의 다양성이 없고, 다만 명칭(samañña)의 구별만이 있을 뿐이라고 설명한다. 해당 경문만을 발췌해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sup>15</sup>

인간 가운데에서 소를 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와셋따여, 그는 농부이지 바라문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Sn.612)

인간 가운데에서 여러 기술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와셋따여, 그는 기술자이지 바라문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Sn.613)

인간 가운데에서 사고 파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와셋따여, 그는 상인이자 바라문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Sn.614)

인간 가운데에서 남의 일을 해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와셋따여, 그는 고용인이자 바라문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Sn.615)

인간 가운데에서 주지 않는 것을 빼앗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와셋따여, 그는 도둑이지 바라문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Sn.616)

인간 가운데에서 활쏘기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와셋따여, 그는 전사이지 바라문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Sn.617)

인간 가운데에서 제사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와셋따여, 그는 제관이 지 바라문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Sn.618)

인간 가운데에서 고을이나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있다면, 와셋따여, 그는 왕이지 바라문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Sn.619)

세상에서 쓰는 이름이나 성은 명칭의 시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때마다 통하는 명칭으로 생겨나 여기 저기 시설되는 것입니다.(Sn.648)

모르는 사람에게 그릇된 견해가 오랜 세월 잠재됩니다. 모르는 사람은 ‘태생에 의해서 바라문이 된다’라고 말합니다.(Sn.649)

태생에 의해 바라문인 자나, 태생에 의해 바라문이 아닌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인해 바라문인 자가 되기도 하고, 행위로 인해 바라문이 아닌 자도 되는 것입니다.(Sn.650)

행위에 의해 농부가 되고, 행위에 의해 기능인이 되며, 행위로 인해 장사치가 되고, 또한 행위로 인해 고용인이 됩니다.(Sn.651)

행위에 의해 도둑이 되고, 행위에 의해 무사가 되며, 행위로 인해 제관이 되고, 또한 행위로 인해 왕이 됩니다.(Sn.652)

현자들은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그 행위를 봅니다. 그들은 조건적 발생을 보는 자로서 행위와 그 과보를 잘 알고 있습니다.(Sn.653)

이상의 경문이 말하는 바는 명료하다. 바라문을 바라문으로 만드는 본질이란 없다는 것이다. 즉 바라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라문이 해야 할 바를 할 때 바라문이 되는 것이다. 결국 ‘나’라는 것은 나를 지시하는 명사에 의해서 지시되는 것일 뿐, 이 지시하는 명사를 제거하게 되면 ‘나’는 어떻게든 설명될 수 없고, 규정될 수 없는 존재가 된다. 즉 로이가 말한바와 같이 심리적, 사회적, 언어적으로 구성되고, 규정되고, 지시될 뿐인 것이다.

### III. ‘나다움’의 허구적 신화

2015년 1월에 제정되고, 7월에 시행된 ‘인성교육진흥법’이 있다. 이 법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人性)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유사한 것이 1968년 12월에 제정, 공포된 ‘국민교육헌장’이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력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량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복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 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 줄 영광된 통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건전한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과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단어만 다를 뿐 사실은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다. 이 둘은 모두 ‘한국인다움’을 말하고, 인식시키고자 한다. ‘한국인다움’이란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한국인답게’행동하는 것일까.

조금만 더 생각해 보자. 한국이라는 나라는 과연 존재하는가? 조금 과격하게 표현해서 한국이란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했던 적도 없다. 다만 한국이라는 ‘이름’만이 존재할 뿐이다. 앞서 붓다가 말한 명칭(samañña)만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를 유발하라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간의 대규모 협력은 모두가 공통의 신화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그 신화는 사람들의 집단적 상상 속에서만 존재한다. ... 중략 ... 국가는 공통의 국가적 신화에 기반을 두고 있다. 서로 만난 적도 없는 세르비아인 두 사람은 상대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다. 세르비아 민족 세르비아 고향, 세르비아 국기의 존재를 함께 믿기 때문이다. 사법체계는 공통의 법적 신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 서로 본 적도 없는 변호사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 다른 사람을 변호하기 위해 서로 힘을 합칠 수 있다. 두 사람 모두 법과 정의와 인권의 존재를 믿고, 수임료와 경비로 지급되는 돈을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중 어느 것도 사람들이 지어내어 서로 들려주는 이야기의 바깥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 인류가 공유하는 상상 밖에서는 우주의 신도 국가도, 돈도, 인권도, 법도, 정의도 존재하지 않는다.

... 중략. ...

푸조는 우리의 집단적 상상력이 만들어낸 환상이다. 변호사들은 이를 ‘법적인 허구’라 부른다. 이것은 손으로 가리킬 수 없다. 물리적 실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적 실체로서는 존재한다.<sup>16</sup>

결국 국가든 사회든, 종교든 그것이 무엇이든 모두 허구이다. 실체가 아니며 단지 명칭만이 존재할 뿐이다. 따라서 ‘한국인다움’은 허구이다. 그러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다. 나는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인성을 갖추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앞서 길게 살펴본 바와 같이, 불교에서는 나를 나이게끔 하는 어떤 실체, 즉 자아를 허구로 보고 이 자아의식의 해체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자아가 허구인데, 어떻게 국가가 실체일 수 있을까. 다만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역사적 배경과 생활방식과 언어를 공유하고 있을 뿐이다. 이 가운데 어떤 역사적 배경이 한국인다움을 상징하는 것이고, 어떤 생활방식이 한국인다움을 표방하는 것인가. 어느 시대에 사용한 언어가 한국인다운 언어인가. 우리는 이것을 특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것도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저 이 땅에 부모님을 인연으로 해서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 경험적인 나 가 존재할 뿐이다. 이 살아가고 있는 ‘나’는 독립적인 실체가 아니다. 무수한 인연들에 둘러싸여 헤아릴 수 없는 존재들의 도움을 받고, 또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고 있는 ‘현재진행형’의 내가 있을 뿐이다. 그러한 ‘나’들이 모여 사회를 구성하고,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를 아름답게 가꾸고 만들어가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 한국인으로서의 역사적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를 살아가고 있는 ‘나’와 나를 둘러싼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sup>17</sup>을 위해서인 것이다.

## 1. 현재진행형으로서의 ‘나’

불교의 관점에서 볼 때, ‘나다움’은 없다. 왜냐하면 ‘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다움’은 매우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다. ‘남자다움’, ‘여자다움’, ‘부모다움’, ‘자식다움’, ‘선생다움’, ‘학생다움’ 등등. ‘남자다움’이라고 할 때, 여기에는 남자라는 강력한 이미지가 배경에 있다. 여자, 부모, 자식, 선생, 학생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것들은 본래 그러한 것이 아니다. 사회적으로 공고하게 구축된 하나의 이미지일 뿐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미지를 설정해 놓고 그에 맞지 않으면 ‘남자답지 못하다’, ‘여자답지 못하다’라는 판정을 내리고, 굴레를 덧씌운다. 도대체 남자다움이란 무엇인가. 부모다움이란 학생다움이란 무엇인가. 이것들은 모두 우리들이 만들어 낸, 조금 더 과격하게 표현하면 이 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집단에서 오랜 시간 공을 들여 만들어낸 허구에 불과하다.

불교의 관점에서 ‘나다움’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굳이 ‘나답게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면,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는 경험적인 ‘나’에게 이익되고 행복할 수 있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그럼 이익과 행복이란 무엇인가? 사람들마다 이익과 행복에 대한 정의가 제각각 다를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은 있다. 그것은 나의 이익과 행복이 다른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침해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이들의 것을 빼앗고, 짓밟는 것으로 얻어지는 이익과 행복이 아닌 것이어야 한다. 그것은 불행의 씨앗이 되고,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는 나에게 불이익과 불행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움’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정립하고 찾는데 애쓰는 대신, 여기 지금 살고 있는 ‘나에게 이익되고 행복한 길’이 무엇인지를 묻고, 찾아야 할 것이다. 지금 배가 고프면, ‘나답게 먹는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맛있게 먹으면 되는 것’이다. ‘농부답게 사는 법’을 말하는 대신에, 밭에 나가 씨앗뿌리고 열매를 가꾸는데 힘쓰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학생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의 이치와 선현들의 가르침을 읽고 배우는 실천이 요구되는 것이다. ‘남자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말해야 한다. ‘정치인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이렇듯 불교에서 ‘나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해야 할 바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실천하는 ‘삶’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때로는 학생으로써, 선생으로써, 아버지로서, 자식으로써, 친구로서, 선배로서, 후배로서, 시민으로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것은 ‘나다움’이 없기에 가능한 일이다. 내가 처한 모든 시간과 공간이라는 현실속에서 요구되는 그 삶의 모습을 묵묵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다.

관념의 허울속에서 벗어나 두 발을 땅에 힘차게 딛고 살아가라는 것이 붓다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나답게 사는 법’이 아닐까.

## 2. 관계적 존재로서의 ‘나’

우리는 자신을 포함한 모든 것을 규정하고자 노력한다. 그런데 그 규정이란 것은 거의 대부분 사실과는 관계가 없는 것들이다. 똥은 더러운 것이고, 금은 귀중한 것이라고 우리는 배워왔다. 이러한 관념적인 규정의 틀에 얽매이게 되면 똥을 통해 얻을 것이 없어지고, 금에 집착하게 된다. 1961년 이탈리아 작가 피에로 만초니가 자신의 똥으로 90개의 통조림을 만들어 ‘예술가의 똥’이란 레이블을 붙여 전시하고, 그것을 같은 무게의 금값을 받고 팔았다. 그 중 하나를 런던 테이트 갤러리는 2002년 3만 8천달러에 샀다고 한다.<sup>18</sup> 똥이 더럽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관념에 가깝다. 그런데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면, 똥을 금값을 받고 팔기는커녕 거름으로도 쓰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는 똥을 ‘더러운 것’이라고 규정짓고, 그것을 사실인 것처럼 교육한다.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나다움’을 말하다. ‘나’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 수많은 나의 모습 가운데 무엇을 ‘나다움’의 온전한 발현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갖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나다움’이란 말속에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를 가장 나답게 하는 것은 개념적 규정이 아니라, ‘상황속에서 올바른 관계짓기’를 통해서 실현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다가니까야에 나오는 Sīṅgalakovādasutta란 경전이 있다. 한역에서는 이를 □육방예경』으로 번역하였다. ‘나’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육방과 예경의 대상’을 도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방향 | 대상  | 방향   | 대상       |
|----|-----|------|----------|
| 동쪽 | 부모  | 북쪽   | 친구와 동료   |
| 남쪽 | 스승  | 아랫방향 | 하인과 고용인  |
| 서쪽 | 처자식 | 윗방향  | 수행자와 성직자 |

이 여섯 방향이 갖는 대상은 말 그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맺을 수밖에 없는 인간관계를 망라한 것이다. 그런데 이 관계는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총 12가지의 대인관계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전에서 붓다는 싱갈라까에게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기본적인 윤리적 덕성을 함양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도덕적 품성이 바탕이 되어야만 비로소 건전한 인간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탄탄한 기초가 마련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sup>19</sup> 이 경에서 윤리적 덕성 혹은 도덕적 품성은 나와 남에게 이익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조건으로 붓다는 제시한다.

## IV. 결론

향후 우리의 교육은 ‘나다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인간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고 만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가족 내에서, 학교 내에서, 사회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 스스로 고민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나다움’ 혹은 ‘나답게’란 매우 추상적인 표현이다. 그리고 이것은 필연적으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문제로 연결된다. 불교는 이러한 막연한 질문 대신에 매우 구체적인 질문을 던진다. □상윳따니까야』에 나오는 Moliyaphaggunasutta에는 다음과 같은 대화가 나온다.

... 중략 ...

“세존이시여, 누가 느낍니까?”

“그와 같은 질문은 적당하지 않다. 나는 ‘사람이 느낀다.’고 말하지 않았다. 만약 내가 ‘사람이 느낀다.’고 말했다면 ‘세존이시여, 누가 느낍니까?’라는 질문은 옳은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와 같이 말하지 않은 나에게는 오로지 ‘세존이시여, 무엇 때문에 느낌이 생겨납니까?’라고 물어야 한다. 그것이 올바른 질문이다.

... 중략...<sup>20</sup>

경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불교에서 ‘나는’이란 주어는 말하지 않는다. ‘무엇 때문에 느낌이 일어나는가?’라는 구체적인 사실만을 언급한다. 그렇기에 ‘나다움’ 혹은 ‘나답게’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답게’를 주체인 ‘나’를 강조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나답게 살아가기’란 ① ‘관계맺기’와 ② ‘역할하기’로 개념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나’라는 존재는 타인과 세계와의 관계성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토대는 타인이며 세계이다. 그 타인들 속에서, 그리고 세계 속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가 ‘나답게 사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하게 된다. 이를 도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나답게 살아가기’에서 ‘나’라는 주어는 강조하지 않아도 된다. 주어를 강조하기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상적인 나다움’과 ‘현실적인 나’의 충돌은 흔히 말하는 자아의 분열로 나아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러한 병리적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체로서 상정된 ‘나’를 생각하거나 약화시키는 것이다. 그럴 때, 관념속의 나가 아닌 현실을 생생하게 살아가는 ‘경험적이며 구체적인 나’가 기능하게 된다. 이 ‘나’는 슬퍼할 때 ‘슬퍼하는 나는 누구인가?’의 나가 아니라, ‘영영 올 수 있는 나’인 것이다. 현실의 삶과 괴리되지 않고 현실에 발을 굳건히 딛고 사는 건강한 나인 것이다. 그 때 비로소 우리는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을 하게 될 것이다. ‘관계맺기’와 ‘역할하기’는 두 가지 특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

|      |    |
|------|----|
| 관계맺기 | 윤리 |
| 역할하기 | 실천 |

‘관계맺기’는 타인과의 관계이며, 세상과의 관계이기에 ‘윤리 규범’에 대한 성찰이 요구된다. 이것은 윤리 규범에 대한 강요가 아니다. 스스로 깨닫고 필요성을 인정하는 윤리규범이다. 주입되고 교육된 것이 아니기에, 개인의 삶속에서 윤리가 매우 강력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역할하기’는 실천의 영역이다. 시키는 일을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능동적으로 찾아 하는 것이다. 능동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할 때, 창발성이 발현된다.

결론적으로 ‘나답게 살자’를 말할 때, ‘나다움’을 문제의 핵심에 놓지 말고 ‘관계’속에서의 ‘나’를 스스로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자식답게, 동생답게를 규정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가족 내에서 ‘나’는 부모님과 형, 누나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나’와 ‘가족’에게 이익되고 행복할지를 스스로 고민하게 하여, 올바른 관계맺기를 가능하게 도와주는 것이다. 관계맺기가 건강하게 이루어지면, 관계속에서의 ‘나’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가 자연스럽게 도출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요약

‘나답게 살아가기’에서 ‘나’라는 주어는 강조하지 않아도 된다. 주어를 강조하기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상적인 나다움’과 ‘현실적인 나’의 충돌은 흔히 말하는 자아의 분열로 나아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러한 병리적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체로서 상정된 ‘나’를 생각하거나 약화시키는 것이다. 그럴 때, 관념속의 나가 아닌 현실을 생생하게 살아가는 ‘경험적이며 구체적인 나’가 기능하게 된다. 이 ‘나’는 슬퍼할 때 ‘슬퍼하는 나는 누구인가?’의 나가 아니라, ‘영영 올 수 있는 나’인 것이다. 현실의 삶과 괴리되지 않고 현실에 발을 굳건히 딛고 사는 건강한 나인 것이다. 그 때 비로소 우리는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을 하게 될 것이다.

‘나답게 살자’를 말할 때, ‘나다움’을 문제의 핵심에 놓지 말고 ‘관계’속에서의 ‘나’를 스스로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자식답게, 동생답게를 규정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가족 내에서 ‘나’는 부모님과 형, 누나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나’와 ‘가족’에게 이익되고 행복할지를 스스로 고민하게 하여, 올바른 관계맺기를 가능하게 도와주는 것이다. 관계맺기가 건강하게 이루어지면, 관계속에서의 ‘나’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가 자연스럽게 도출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주제어

나답게 살기, 관계, 관념속의 나, 경험적인 나

## 참고문헌

MN Majjhima Nikāya, PTS

SN Saṃyutta Nikāya, PTS

Sn Suttanipāta, PTS

Vin Vinaya, PTS

이진경, 『불교를 철학하다』, 서울 : 한겨레출판, 2016

이필원, 「초기불교의 인성교육적 특성 고찰」, 『불교학보』 제76집, 2016

전재성 역, 『숫타니파타』, 서울 : 한국빠알리성전협회, 2004

전재성 역, 『쌍윳따니까야』 2, 서울 : 한국빠알리성전협회, 2006

전재성 역주, 『마하박가-율장대품』, 서울 : 한국빠알리성전협회, 2014

데이비드 로이, 『돈, 섹스, 전쟁 그리고 카르마』, 허우성 옮김, 서울 : 불광출판사, 2012

미치오 카쿠, 『마음의 미래』, 박병철 옮김, 서울 : 김영사, 2015,

이즈쓰 도시히코, 『의식과 본질』, 박석 옮김, 서울 : 위즈덤하우스, 2013

제임스 H. 오스틴, 『선과 뇌의 향연』, 서울 : 대숲바람, 2012

존 브룩만 엮음, 『위험한 생각들』, 이영기 옮김, 서울 : 웅진싱크빅, 200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0/08/2012100803242.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0/08/2012100803242.html)

## Endnote

- 1 미치오 카쿠, 『마음의 미래』(서울 : 김영사, 2015), 박병철 옮김, 31쪽.
- 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0/08/2012100803242.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0/08/2012100803242.html)
- 3 미치오 카쿠, 앞의 책, 32쪽.
- 4 미치오 카쿠, 앞의 책, 62쪽.
- 5 미치오 카쿠, 앞의 책, 62~63쪽.
- 6 제임스 H. 오스틴, 『선과 뇌의 향연』, (서울 : 대숲바람, 2012), 81~82쪽.
- 7 Vinya I, 13쪽. 전재성 역주, 『마하박가-울장대품』, (서울 : 한국빠알리성전협회, 2014), 111-112쪽.
- 8 이즈쓰 도시히코, 『의식과 본질』, 박석 옮김, (서울 : 위즈덤하우스, 2013), 36쪽.
- 9 Vinaya I, 14쪽, 전재성 역주, 앞의 책, 113~114쪽.
- 10 존 브룩만 엮음, 『위험한 생각들』, 이영기 옮김, (서울 : 웅진싱크빅, 2007), 99쪽.
- 11 존 브룩만 엮음, 위의 책, 101쪽.
- 12 데이비드 로이, 『돈, 섹스, 전쟁 그리고 카르마』, 허우성 옮김, (서울 불광출판사, 2012), 36쪽.
- 13 데이비드 로이, 위의 책, 36~37쪽.
- 14 데이비드 로이, 위의 책, 37쪽.
- 15 전재성 역, 『숫타니파타』(서울 : 한국빠알리성전협회, 2004), 331쪽 이하.
- 16 유발하라리, 앞의 책, 53~55쪽.
- 17 붓다가 그 유명한 전도선언에서 사용한 표현이다. ‘hitāya sukhāya devamanussānam(신들과 인간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Vinaya I, 21쪽.
- 18 이진경, 『불교를 철학하다』(서울 : 한겨레출판, 2016), 137쪽.
- 19 이필원, 「초기불교의 인성교육적 특성 고찰」, 『불교학보』 제76집, 2016, 50~51쪽의 내용 참조.
- 20 SN.II, 12쪽. 전재성 역, 『쌍윳따니까야』 2, (서울 : 한국빠알리성전협회, 2006), 114쪽.